

“마지막 권면”

약 5:13-20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3 가지 중요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약 5:13)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응답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 5:17)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던 것을 기도했을 때 비가 온 것은 그가 우리와 달리 무엇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 같은 사람입니다. 바알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선지자 400인을 혼자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약 5:13-14)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 5:16)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이 왔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회복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사람들의 질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의 신앙생활과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습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누며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고백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금까지 그를 잡아매고 있던 죄사슬이 끊어집니다.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 온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고, 마가 요한의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면 기도의 사람과 공동체에 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장예배에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찬송입니다.

“(약 5:13)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쁜 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줍니다. 사람을 만나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만족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배반했을 때에 악신이 붙어 괴로웠다고 합니다. 다윗은 수금으로 찬양했고, 그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시며 찬양사역을 하시는 돈 고셋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사역에 헌신하게 된 동기는 부인되는 조이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조이 사모님은 목사님 딸로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줄곧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며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조이 사모님은 ‘년 21살이 되면 죽는다’는 계속적인 사단의 음성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부터 진정으로 찬양하라!” 이 음성에 도전을 받아서, 조이 사모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하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세계를 다니며 예배와 찬양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전도입니다.

“(약 5:19-20)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세에 성도들의 본질적인 봉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봉사의 모습은 내부적으로는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영혼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느 약을 먹고 고침을 받았다면 그 약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엄청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1) 이웃에 대한 무관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약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도 한인들의 70%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교패만 달아놓고 형식적인 교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물을 파다 모래 속에 파묻힌 사람을 구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워싱턴의 많은 영혼을 구하기에 열심을 다하면 우리교회와 이 워싱턴은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 입니다.

2) 죄로서 인지하지 못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을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 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3:17-19)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에베소라는 큰 도시의 작은 항구 밀레도에서 자신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만났을 때 앞으로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며, 엄숙히 말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지만 이곳에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행 20:26-27) 전도하지 않는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전도의 귀한 사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종종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지옥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는 “인간을 천당에 보내기 위해서 놀라게 하려는 생각은 비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놀라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3) 전도의 따르는 상급을 모름

“(단 12:3)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계획 속에서, 단 12:3 말씀을 통해 ‘성광’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며 우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옳은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로 축복하셔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 장군과 재벌들도 결국에는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3개월만 식사를 조절하면, 몸의 체질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주기로 내면의 묵상이 얼굴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결론으로 강조하는 기도, 찬양,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체질이 변화되어,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 목장(혹은 가정)에서 합심기도하여 응답된 케이스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당신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찬양의 시간과 방법을 나눠주시고, 일상의 찬양을 통해 경험한 은혜도 나눠 주십시오.
4. 당신을 전도한 사람(혹, 당신의 신앙적 결단에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에게 발견된 영혼에 대한 열정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감동을 받았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당신의 평생에 (교회를 옮기신 분을 제외하고)을 전도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은 ‘한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